

혁신 대학을 만나다 권대봉 중부대학교 총장

“국제·창의캠퍼스로 도약...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만들 것”



권대봉 총장

“대학이 스스로 변화해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타자가 만든 계획에 수동적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교직원도 존재 가치를 발휘할 길이 없습니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학생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등 대학의 위기 국면 속에 권대봉(69) 총장이 지난 9월 중부대학교의 새로운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권 총장은 앞서 한국직업능력연

충청캠퍼스, 국제화 교육과정 강화... 외국인 유학생 2000명 유치 목표
고양캠퍼스, 공학·문화·공연 융합... 4차 산업혁명·한류 문화 '전진 기지'로
뉴노멀 시대 만들어갈 인재 필요로운 '마음 발' 일구도록 돕고파

구원장 재임 시 OECD와 연구 협력을 주도했으며, 세계은행 및 유네스코와 협업체 개발도상국의 인력개발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국제개발전문가다. 화려한 이력을 지닌 권 총장의 취임 일성은 '변화'였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중부대를 모든 학생이 성장하는 대학,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권 총장은 “지속적인 대내외 변화를 통해 중부대의 교육 목표인 ‘바른 인재’ ‘창의 인재’ ‘국제 인재’로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창의캠퍼스 체제 구축에 박차
권 총장이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캠퍼스 특성화 전략이다. 두 개의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부대를 각각 ‘국제캠퍼스’와 ‘창의캠퍼스’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권 총장은 “충청캠퍼스는 세계로 미래로 통하는 국제 캠퍼스로, 고양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는 창의캠퍼스로 도약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자기주도학습을 토대로 중부대를 학생 성장 교육의 터전으로, 교직원이 행복한 캠퍼스로 만들겠다”고 했다.

“충청캠퍼스를 졸업하면 누구나 3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과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학부를 신설하는 등 세부적인 특성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도네시아·인도 등 유망주력 대상 국가를 확대해 외국인 유학생을 2000명 이상

유지할 계획입니다. 해외 취업처 발굴에도 힘써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아우르는 글로벌 캠퍼스 체계 변화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고양캠퍼스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학과 문화콘텐츠, 공연 예술 분야가 중심이 되는 창의캠퍼스로, 4차 산업혁명과 한류 문화의 전진 기지가 되겠다는 목표다. 권 총장은 “이를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AI 및 빅데이터 과목을 기본 교과목으로 수강하게 하고, 메타버스와 스마트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들이 참여하는 융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랩을 활성화해 창의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뉴노멀 시대를 만들어갈 세대입니다. 없는 것을 새롭게 일구며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창의 인재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생각을 생각’해 ‘마음 발’을 일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먼웨어 역량을 배양하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교육 시스템 마련
권 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학 교육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도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특히 중부대는 20여 년간 원격대학원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원격교육을 위

한 기반을 발 빠르게 마련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의 경우 기존의 면대면 수업 방식을 포함한 캠퍼스를 잇는 활발할 교류 체제로 교육 환경을 개선했다. 권 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원격 교육과 하이브리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며서 “우리 대학은 전공당 1강의실 이상 하이브리드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온·오프라인 실시간 교육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 총장은 인터뷰 내내 ‘학생 성장’을 기치로 설명을 이어갔다. 학생 성장을 위해 학교의 발전과 변화를 알리려는 권 총장의 모습에서 뜨거운 열의가 느껴졌다. 그러면서 권 총장은 서예 류성룡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류성룡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를 준비해 조선을 위기에서 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평생 학습을 한 교육자 류성룡처럼 미래지향적인 성찰과 융·복합적인 실용의 창의 리더십을 통해 평생 학습한 교육자가 되려고 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 이익을 위한 존재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특히 직업인으로서 올바른 직업 철학과 소명 의식을 가지려면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필수겠죠. 이를 위해 중부대에 인문교양 교육과정을 강화해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융·복합적인 창의 리더십을 길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 수 있도록 희망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금산=신영경 조선예대 기자
출처: 조선일보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C3면 [혁신대학을 만나다] 권대봉 중부대학교 총장 인터뷰

평창 청심대



권혁진 박사

추밀공파, 36세, 강원한문연구소

1788년 정조대왕이 김홍도를 불렀다. 금강산을 그려오라는 명을 받은 김홍도는 그림 여행길에 올랐다. 영월 주천에서 청허루를 그렸다. 평창 대화를 지나 모노령(모릿재)을 넘은 후 청심대(淸心臺) 앞 하천을 건너서 화폭을 꺼냈다. 대부분 시와 여행기에 묘사된 청심대는 김홍도가 섰던 곳이 아닌 청심대 뒤로 난 오솔길에서 본 모습이었다.

오대천 가에 우뚝 선 바위가 백 척 이상 되는 듯했다. 뾰족한 바위도 기이하지만 바위 틈에 늠름하게 가지를 드리운 소나무가 인상적이었다. 밑에 흐르는 오대천과 모노령으로 향하는 오솔길도 그랬다. 길 위에선 여행객은 아마도 자신일 것이다.

청심대와 관련된 청심(淸心)의 이야기는 심언광(沈彦光, 1487~1540)의 시에 등장할 정도니 유명한 이야기였던 것 같다. 강릉대도호부부사로 있던 양수(梁守)가 한양으로 돌아갈 무렵인 1418년부터 이야기가 전해져 왔을 것이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병조 참의로 있던 양수가 강릉대도호부부사로 임명된 것은 1412년인 태종 12년이다. 강릉에 머물던 그는 청심과 정을 나누었다. 임기가 끝나 떠나는 양수를 배웅하기 위해 대관령을 넘어 오대천까지 왔다. 부사 일행이 오대천 가의 높은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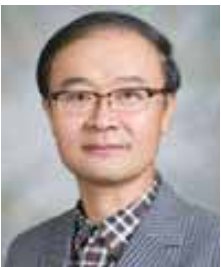


김홍도의 청심대

사회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8>

용만집(龍巒集)



권갑현 편집위원장

〈용만집〉은 조선 중기의 학자 권기(權紀, 1545~1624) 공의 문집이다. 용만(龍巒)은 공의 호(號)이며 자(字)는 사립(士立)으로 시조 태사공 23세이다. 아버지는 통정대부에 추증된 권몽두(權夢斗)이다.

공은 송암(松巖) 권 호문(權好文, 1532~1587, 태사공 21세)의 문인으로 평생 학문에 진력하였고, 만년에 학문과 효행으로 재음감(濟用監) 참봉(參奉)에 천거되

었으나 부친상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1605년에 〈안동권씨 을사보(乙巳譜)〉를 편찬하였으며 1608년에 안동읍지인 〈영가지(永嘉誌)〉 8권 4책을 편찬하였다.

〈안동권씨족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용만공이 1588년 부친의 명을 받아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권씨전보(權氏全譜)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공의 8대조 판서공(判書公) 권인(權軫, 시조후 15세) 이하 내외 후손을 하나의 책으로 편찬하니 권질(卷帙)이 매우 컸다. 그것은 임진왜란 때 분실되었다. 그 뒤 도원수 권율(權慄, 1537~1599)이 안동에 내려와 종중(宗中)의 함의로 족보편찬 사업을 용만공에게 맡겼다. 인적·물적 자원은 도원수 권율과 경상도 도사 권진(權鎰, 1572~1624)이 주선하고 권행가(權行可)·권중상(權重常)과 함께 편찬하고 수정 및 보완과 교정을 거듭하여 초본을 완성하였는데 소요 기간이 8년, 분량은 16질(帙)이었다. 이 〈을사보〉는 끝내 간행되지 못하고 초보(草譜) 상태로 전해 내려왔는데 현재에도 용만공의 서문(序文)만 남아 있고 당시의 초보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영가지〉는 용만공이 1602년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으로부터 〈영가지〉 편찬 주요 항목을 받아 같은 고을의 권행가(權行可, 송암 권호문의 아들)와 함께 편찬에 착수하였다. 이때 〈동국여지승람〉과 〈함주지(咸州誌)〉의 목차를 참고하는 한편, 서애에게 질의한 다음 동향의 선비들과 함께 나누어 집필하게 하였는데, 서애가 1607년에 세상을 떠나자 편찬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마침 〈함주지〉를 편찬한 적이 있는 한강(寒岡) 정구(鄭矩, 1543~1620)가 안동부사로 부임하자 용만공을 비롯하여 김득연(金得衍)·권오(權晤) 등 10명이 부청(府廳)에 모여 편찬을 계속하여 1608년에 8권 4책으로 완성하였다.

이 〈영가지〉는 용만공의 사후에 오래도록 초고본으로 전해오다가 공의 후손 권상학(權相鶴)·권상택(權相宅) 등에 의하여 비로소 1899년에 간행되었다. 권두에 용만공이 1608년 1월에 지은 서문이 있고, 권말에 간행 당시 척암(拓菴) 김도화(金道和, 1825~1912)와 전원(田園) 류도헌(柳道獻, 1835~1909)이 지은 발문이 있다.

〈용만집〉은 공의 7세손 권윤신(權潤身, 1743~1810)이 공의 시문을 수집하여 1800년에 목판본 2권 1책으로 처음 간행하였다.

권1에는 166제(題) 225수(首)의 시(詩)가 수록되어 있다. 〈효우(曉雨)〉·〈종속(種粟)〉·〈즉사(卽事)〉·〈희우(喜雨)〉 등의 시에는 농촌의 실상이 나타나 있고, 〈서회(敘懷)〉·〈병중유감(病中有感)〉·〈상시(傷時)〉 등의 시에서는 불우한 선비의 강개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그밖에 퇴계 이황(李滉)·회재 이언적(李彦迪) 등 선현을 추모하는 시도 있다.

권2의 〈근독잠(謹獨齋)〉에서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가야 한다는 자신의 수신철학을 밝혔다. 〈청성서원초창기사(靑城書院初創記事)〉는 청성서원을 처음 지었을 때의 구조나 자재, 설계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 밖에도 자기의 일생을 기록한 〈자지(自誌)〉와 〈안동권씨족보〉 편찬의 전말을 적은 〈권씨족보서(權氏族譜序)〉, 안동의 역사·풍물·지리 등을 자세하게 서술한 〈영가지〉를 편찬하고 쓴 〈영가지서(永嘉志序)〉가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송오(松塢) 정전(鄭詮, 1569~1639)이 지은 묘지명, 밀암(密庵) 이재(李裁, 1657~1730)가 지은 묘갈명이 실려 있어 용만공의 생애를 가늠할 수 있다.

〈용만집〉의 서문은 1796년(정조 20)에 외(外)7세손 후산(后山) 이종수(李宗洙, 1722~1797)가 지었고, 발문은 우고(雨皐) 김도행(金道行, 1728~1812), 임여재(臨汝齋) 류규(柳, 1730~1808), 학림(鶴林) 권방(權訪, 1740~1808, 시조후 28세), 귀와(龜窩) 김굉(金堉, 1739~1816) 등이 지었다.

초간(初刊) 후 160여 년이 지난 1964년에 증보(增補)를 석인(石印)하여 1800년 간행본과 합하여 중인(重印)하였다. 증보에는 학봉 김성일(金誠一)의 〈증유시(贈遺詩)〉, 송암 권호문의 〈기제산천재(寄題山泉齋)〉, 역암(檇庵) 류치유(柳致游, 1811~1871)의 〈호계서원통문(虎溪書院通文)〉, 이재(頤齋) 권언하(權彦夏, 1813~1896, 시조후 31세)의 〈삼계서원통문(三溪書院通文)〉, 지암(止庵) 김건수(金健壽, 1804~1866)의 〈청성서원통문(靑城書院通文)〉, 모계(某溪) 김홍락(金鴻洛, 1868~1933)의 〈출루정중수기(拙廬亭重修記)〉, 채산(蔡山) 권상규(權相圭, 1874~1961, 시조후 33세)의 〈산천재중수기(山泉齋重修記)〉가 수록되어 있어 공의 행적을 일면할 수 있다. 발문은 방후손 권정일(權正鎰, 1890~1980, 시조후 33세)이 지었다.

〈용만집〉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1800년 간행본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에서는 구두점이 찍힌 1964년 중인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문집 전체의 원문 텍스트와 PDF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에 문중에서 중인본을 국역하여 간행하였다. 이 국역본에는 용만공의 유묵(遺墨) 두 점이 원문과 함께 국역되어 실려 있다. 또한 〈영가지〉 전체의 영인 원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음은 용만공이 64세 [1608년] 때 지은 칠원율시로서 제목이 〈聞金瑞老 齡移居浮碧亭下偶吟 [서로(瑞老) 김언령이 부벽정 아래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읊다]〉이다.

昔年浮碧慣登遊(석년부벽관등유)
옛적 익숙하게 부벽정에 올라 노닐 적에
多少奇觀尚掛眸(다소기관상괘모)
기이한 볼거리 많아 더욱 눈여겨보았었지
地擁東西藏淑氣(지옹동서장숙기)
땅은 맑은 기운 품고 있는 사방을 안았고
溪環林麓送鳴球(계환림록송명구)
시내는 구슬소리 보내오는 숲을 감돌았네
新村物色炊烟合(신촌물색취연합)
이사 간 마을 풍경은 밥짓는 연기 모이고
古縣民風信讓優(고현민풍신양우)
옛 고을 백성 풍습은 성실 겸양 넉넉했네
病客更難尋舊跡(병객경난심구)
병든 나그네는 옛 자취 다시 찾기 힘들어
夢魂徒自繞仙丘(몽혼도자요선구)
꿈속에서 그저 혼자 신선세계 둘러보았네



행주서원(기공사 紀功祠) 추향제 봉행



2021년 10월 19일 11시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기공사(紀功祠, 행주서원, 원장 권정택)에서 초헌관에는 이승엽(李承燁) 고양문화원장, 아헌관에는 이종성(李鍾成) 행주동장, 종헌관에는 김봉민(金奉民) 행신동장, 축관 이남무(李南懋) 서예원장, 집례 이현규(李顯猷) 유도회장으로 분장하여 총장공(忠莊公) 권율(權慄) 도원수(都元帥) 등 7장수를 위한 추향제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행주서원에서는 선무공신 1등 충장공(宣武功臣1等忠莊公) 권율(權慄) 도원수(都元帥)를 주벽으로 선무원종공신1등 칠도병마절도사(宣武原從功臣1等七道兵馬節都士) 선거이(宣居怡), 선무공신3등(宣武功臣3等) 조방장(趙邦將), 한성판윤(漢城判尹), 회녕부사(會寧府使) 조경(趙敬), 소모사(召募使), 조도사(調度使), 함안군수(咸安郡守), 독운사(督運使) 변이중(邊以中), 경기수사(京畿水使), 전리수군절도사(全羅水軍節度使) 이빈(李蘋), 충정수사(忠淸水使), 전리수군절도사(全羅水軍節度使) 정결(丁傑), 절충장군(折衝將軍), 국일도대선사부종(國一都大禪師扶宗), 수교보광현당니목(樹教保光玄朗雷默) 처영(處嶺) 등 일곱 장수가 배향되어 있다.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